

“시총 45조 목표… 헬스케어로 글로벌 빅파마 꿈꾼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⑦ 통합 셀트리온의 시대

지난해 12월28일,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하던 셀트리온과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한 통합 법인이다. 2024년 1월1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통합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지난 4일 40조3173억원을 기록, 코스피 시장 8위에 올라 있다.

셀트리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셀트리온제약까지 모두 합병하는 그룹 대통합 작업에 나선다. 3사가 모두 합병할 경우 시가총액 45조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그룹이 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빅파마를 향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꿈은 이제 시작됐다.

◆짐펜트라, 통합 셀트리온 '첨병'… 시총 45조 거대 기업 예고

통합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것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30년까지 1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 셀트리온의 첫 해 매출 목표는 3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그룹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 회장은 “내년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의 미국 출시를 통해 3조5000억원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본격 출시됐다. 서 회장은 미국 영업 현장 최일선에서 짐펜트라의 직접판매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짐펜트라 한 품목으로만 미국에서 내년 2조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 자리에서 서 회장은 화상으로 등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짐펜트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짐펜트라가 개시돼 사용하는 병원이 2800개, 처방의사는 7500명에 이른다”고 소식을 전했다.

셀트리온은 다수의 미국 처방약급여 관리업체(PBM)들로부터 보험 환급이 지난달부터 본격 개시되면서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ESI 등 PBM을 통해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약 40% 규모의 커버리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되는 다수의 PBM을 비롯, 대형 PBM과의 계약 추가 등을 감안할 경우 짐펜트라의 매출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짐펜트라가 주력하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IBD) 시장 규모는 12조80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은 우선 2025년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영업 활동의 결



헬스케어 합병으로 시총 40조, 코스피 8위 올라
美·유럽 글로벌 공략… 2030년 매출 12조 목표
3사 합병, 시가총액 45조 바이오 그룹 탄생 예고
美 짐펜트라 홍보 주력… 사용 병원 2800개 달해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보
韓, 바이오·제약 산업서 주요국 자리매김 되길 바래

실로 정맥주사(IV)제형에서 SC제형으로의 전환율이나 등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매출 가속화의 토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2조원 이상의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짐펜트라 매출이 본격 확대되면서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통합 셀트리온은 73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 성장한 규모다. 2분기 역시 77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가 전망한 실적 평균에 따르면 통합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3조5292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무난히 넘긴다.

◆韓 바이오시밀러 위상 높이는 게 목표… 이미 ‘퍼스트 무버’ 췌차기 시작

서정진 회장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당시 오는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22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셀트리온은 주요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와 램시마SC의 합산 점유율은 67%로 2022년 평균 점유율 대비 8%포인트 올랐다. 유럽 주요 5개국 기준 램시마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후속 파이프라인도 빠르게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 1월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유플

라이마 80mg이 미국에서 출시됐다.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시장 매출만 24조원, 글로벌 매출 26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블록버스터로 꼽힌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80mg에 이어 40mg의 동일한 고농도 제형과 소아 환자를 위한 20mg 제형도 잇달아 선보이며 맞춤형 마케팅으로 전략을 차별화했다.

셀트리온은 이달 1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CHMP의 승인 권고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옵리클로’가 유럽 판매 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지위를 확보했다. 졸레어는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했다.

5월 말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아이텐젤트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품목허가 절차를 진

행 중이다.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2조원을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다.

이와 함께 현재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와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키투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역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 상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 역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을 글로벌 빅파마로 키워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 산업 하나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과 함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만큼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짐펜트라’